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진행하는 <학부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04년 5월 13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은 이론과 실습 두 분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먼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학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상황을 분석해 줌으로써 실제적인 기술(skill)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워크숍에 참석한 서민수 씨(통계학과)를 통해서 이번 워크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설득의 힘, 프레젠테이션

서 민 수\*

“동일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두 사람이 같은 문제에 대해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보다 설득력 있게 발표한 사람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남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 <학부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자료집 중에서 –

난 작년에 병역 특례를 마치고 이번 학기에 복학을 했다. 3년 만에 찾은 학교는 나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나에게 예전의 학교는 그냥 놀이의 공간이었지 배움의 공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복학을 한 나에게 학교는 마냥 놀이의 공간일 수 없었다. 3년간의 병역 특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또한 배움의 시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 지였다. 학교가 정말 좋은 곳이고 학교에

서 배울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단 것을 복학한 후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난 학교에서 단지 전공 지식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좋은 강연회 없나, 좋은 워크숍 없나 하며 학교 게시판을 자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을 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와~! 내가 찾던 그런 워크숍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회사 생활을 한 터라 프레젠테이션이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재학 중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위에서 말한 대로 남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바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을 했다. 참가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 혹시나 마감이 됐으면 어찌나 하는 조마조마한 맘으로 등록을 했다. 다행히 마감이 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워크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1단계와 2단계는 윤세남(前 카네기 연구소 컨설팅 본부장) 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강연, 3단계에서는 비디오 촬영 및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날 수업과 시간이 조금 겹쳐서 수업이 끝나자 마자 허겁지겁 강의실로 달려왔다. 그런데 너무 예상 밖이었다. 많은 사람들로 강의실이 꽉 매어져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않은 것이었다. 약 20여명 되었을까? 하지만 다들 정말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고 그 열기가 강의실을 꽉 채우고 있었다. 1단계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의 기초에 관한 것이었다. 강사님께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 말투, 자세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모범으로 나에겐 다가왔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

프레젠테이션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그 준비 사항으로는 첫째, 청중을 분석해야 한다. 청중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좋은 프레

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둘째, 목표를 정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의 목표가 청중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인지, 청중으로 하여금 모르고 있던 정보나 사실을 접하고 이해하도록 할 것인지, 청중의 의견이나 견해를 바꾸게 하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것인지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셋째, 자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동안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은 Opening, Message, Evidence, Q&A, Closing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Opening은 청중이 프레젠테이션과 프레젠테이션에게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이야기나 질문, 청중에 대한 칭찬, 드라마틱한 연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Message는 프레젠테이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청중이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디자인해야 한다. Evidence의 형태에는 예시를 든다거나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핵심 주제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강사님께서 드신 비유는 참 마음에 와 닿았다. “프레젠테이션은 비행과도 같습니다. 비행 중 난기류로 인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만 이 착륙만 좋다면 그 비행이 성공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도 중간에 조금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지만, 시작과 마무리만 좋다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것으로 비유를 듣다면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Q&A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작해 청중에게 질문을 원한다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Closing은 청중이 프레젠테이션과 프레젠테이션에 긍정적인 인상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에 대한 이론 강의가 끝난 후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 시의 자세, 목소리의 크기, 옷 입는 방법 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내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둘째 날에는 강사님께서 약간의 시간을 주시고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에 참석한 서민수 씨(통계학과)가 자신이 속한 통계학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이론 강의와 실습이 적절히 안배되어 참석자들의 실제적인 프레젠테이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각자 3분여 동안 프레젠테이션 할 내용을 구성해 보라고 하셨다. 그 후에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한 뒤 그것을 보면서 강사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다. 난 구경꾼으로 남들이 하는 것을 보려고만 했지 직접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리란 생각은 못했었다. 그런데 첫째 날 보다 조금 더 적은 사람들이 모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 볼 기회를 가졌다. 난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갔고 그 때 머릿 속은 백지장이 되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강단을 내려왔고 비디오 분석 때 처음으로 내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하기 싫은 프레젠테이션이었지만 하고 나서는 안했으면 후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셋째 날에는 강의실이 아니라 세미나실에서 모였다. 나를 포함해서 3명이 참석했다. 3명밖에 참석하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었다. 3명이면 내가 또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3명밖에 없어서 더욱 도망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한 명씩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시간이었다. 이젠 제법 나도 분석을 하겠다. ‘이것은 약간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디오로 보니 지난번의 프레젠테이션

이션보다 좀 더 잘했던 생각이 들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비디오 분석을 꼭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비디오 분석을 통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번의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은 끝이 났다. 매우 만족스러운 워크숍이었다.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에서도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고, 사회에 나가면 더욱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다. 또한 그 내용이 알차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좋았다. 이론 강의로만 진행되었더라면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적절한 실습과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적은 인원만 참석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실습까지 하기에

는 시간이 약간 부족한 듯 했다.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 비주얼 자료 작성 방법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요즘에는 발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나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발표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앞에 나가기만 하면 가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던 나에게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해 준 이번 워크숍이 정말 고맙다. 요즘도 가끔씩 윤세남 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그만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남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에 이런 비슷한 워크숍이 있다면 계속해서 참석하고 싶다. ♣